

오리산업 동향 및 정책방향



III 김 영 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사무관

⊗ 오리산업 현황(現況)

- 2007년 오리생산액은 5,824억원으로 축산업 생산액 11조2,773억원의 5.2% 점유(농업분야 품목별 생산액중 15위)
 - ▶ 생산액(순위) : (2003년) 4,595억원(18위) ◉ (2006년) 6,480억원(12위) ◉ (2007년) 5,824억원(15위)
 - ※외식산업 성장과 더불어 보양식품의 이미지를 벗어나, 대중음식 인식전환으로 지속적인 소비증가【표1. 참조】
- 국내 오리 산업은 1991년 수입자유화로 2003년까지 사육수가 감소하였으나, 1997년 12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제한 조치 이후 사육규모가 지속적

으로 늘어남

- ▶ 농가 : (1990년) 13,8천호 ◉ (1995년) 9,5천호 ◉ (2000년) 13,0천호 ◉ (2005년) 8,9천호 ◉ (2006년) 8,5천호 ◉ (2007년) 7,2천호
- ▶ 사육 : (1990년) 717천수(51수) ◉ (1995년) 2,357천수(249수) ◉ (2000년) 5,134천수(395수) ◉ (2005년) 8,389천수(940수) ◉ (2006년) 9,386천수(1,110수) ◉ (2007년) 10,513천수(1,460수)
- 오리도축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오리고기 안전성 및 위생수준 향상
 - ▶ 오리고기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 6월 오리도축가공장 설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 오리도축장 현황(2006. 12현재) : 24개소(오리전용 12개소)

⊗ 오리산업의 한계(限界)

- AI등 질병발생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 위생, 사육환경, 방역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가금산물 수출국(일본, 대만, 홍콩 등)에 대한 수출 확대 한계
 - ▶ AI 등의 가축질병 발생 또한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 향상이 요구됨
 - 오리고기 수출량 : (2004년) 1,450톤 ◉ (2005년) 590톤 ◉ (2005년) 361톤

【표 1】 오리고기 생산 및 소비량

▶단위 : 톤, 천명

년도	국내생산량(A)	수입량(B)	수출량(C)	소비량(A+B-C)	1인당(g)	인구(천명)
2001	83,102	5,069	440	87,731	1,853	47,357
2002	106,865	1,131	620	107,376	2,255	47,622
2003	103,386	2,273	357	105,302	2,200	47,859
2004	98,201	519	1,450	97,270	2,025	48,039
2005	112,870	57	590	112,337	2,334	48,138
2006	116,972	59	361	116,670	2,416	48,297
2007	146,232	750	-	146,982	2,998	49,024

※2004년도 수출량은 수매고기를 러시아로 수출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

- 육계산업과 더불어 오리산업은 계열화 비율이 높은 반면 사육시설의 영세성 등 산업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
- 생산자 위주의 자율수급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조금사업 활성화 미흡
 - ▶ 타 축종의 경우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소비홍보 등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나 가금분야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정부 정책방향(政府政策方向)

1 품질고급화(品質高級化)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로 수입산 가금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식별정보 제공 확대
 -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작업장 명칭 등의 표기)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차단하고 수입산과의 구별 유도(2008년)
 -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 도축장에서 2008년부터 5만수 이상, 2009년 이후 도축·가공·포장단계까지 전면 시행
 - 가축 수송 선진화를 위해 수송특장차량 구입지원
 - ▶ 가축수송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등 지원
 - 연간 총 110대(소10, 돼지 60, 가금 40) 지원
- ※2005년 농진청 시범사업결과, 출하수송밀도 감소(0.31 m²/100kg → 0.35m²/100kg), 도체 A·B등급 출현율 증가(73% → 81%), 생산비 감소(193.3천원/두 → 183.6천원/두) 효과 거양
-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 직불제 도입 (2009 신규)
 - ▶ 한우, 젓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 추후 대상품목 확대

2 생산비 절감(生産費切感)

- 계열화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 오리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
-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및 방역효율성 향상 도모
 -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2008년도 사업량 : 총 515개소(한우 200개소, 양돈 150개소, 양계 75개소, 오리 10개소, 낙농 80개소)
 - ※지원한도액 : 한육우 2억원, 양돈 9천만원, 산란계 14천만원, 육계 7천만원, 오리 7천만원, 낙농 2천만원
- 오리 개량 및 종오리업 육성 본격 추진
 - ▶ 개량대상가축에 오리 추가 지정으로 혈통관리 및 검정 실시
 - ▶ 오리를 개량대상에 포함, 종오리업을 종축업 등록대상에 포함
 - ▶ 원종오리 생산시설 지원(2개소, 56억원, 2008~2010년)
- 종오리 Data Base 구축을 통한 수급예측 체계 확립방안 강구
 - ▶ 종오리 Data Base는 종계 Data Base추진상황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하여 추진 검토
 - 입식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급조절기능 강화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관련 고시 개정
 - ▶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 추진



※두당 사육면적(현행) : 한·육우(7㎡), 젓소(8.4㎡), 돼지
(0.9㎡), 산란계(0.04㎡), 육계(0.07㎡)

- 일부 축종(돼지, 닭) 기준이 농가에서 실제 적용 곤란
기준 개정

※개정(안) : 돼지(0.9㎡ → 0.7㎡), 오리 신설(0.23㎡), 육
계는 단위면적당 중량으로 변경

▶ 향후 축산업 미등록 농가와 오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
준 미준수 농가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
외 계획

■ 오리 산업육성 교육제도 도입(2009년 신규)

▶ 2009년부터 오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예산 : 3
천만원)

3 수출확대(輸出擴大) 및 소비촉진(消費促進)

■ 오리고기 군납 추진(2008년 8월 1일부터)

▶ 살코기만(뼈제거) 1인 1일 4.5g(월 135g, 연간 778톤) 군납
추진

■ 닭·오리고기 수출업체 마케팅 지원 강화

▶ 외국의 가금육 소비행태, 유통실태 조사를 통한 기업 마
케팅 역량 강화

▶ 가금육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 국산 가금육에 대한 해외 판매촉진(Promotion) 지원 강화

- 한류 열풍을 활용한 해외광고, 시식회 등 국산 가금육
홍보 적극 추진

■ 오리자조금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 오리자조금 및 가금수급위를 통한 소비홍보 및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의무자조금 거출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조달 기반 구축

4 AI재발방지대책 추진

■ AI를 “동절기 특별방역”에서 “연중 상시방역으로
전환”

▶ 예찰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초동방역팀”현장배치 등

▶ AI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SOP 개정, 2008년하반기 예찰
계획 수립·시달

5 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가축공제 가입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화재(火災), 풍재(風災), 수재(水災), 설해(雪害) 등 불의의
피해에 대비한 경영안정 도모

